

중동신화여행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문화재단이 진행한 '신화와 예술 맥놀이-중동신화여행,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강좌의 특성상 이미지나 영상, 소리 등을 이용한 강좌가 많았는데, 이 책에서도 그림과 표, 지도 등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현장성을 살리려고 했다. 저작권 관계 등 어쩔 수 없이 생략한 이미지 자료도 있음을 밝힌다.
2. 각주를 달아 강의 내용을 보강했으며 필요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개념에는 본문에 따로 추가 설명을 달았다.
3. 책 뒤에 별도로 참고자료와 더 읽을 만한 자료를 소개했다.
4. 외래어 표기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규칙을 최대한 따랐으나, 일부는 필자의 의견이나 관행을 따랐음을 밝힌다. 어떤 경우 그 용어가 처음 나올 때 두 가지 가능한 표기를 함께 적기도 했다.
5. 신화의 특성상 원래의 신화 자체와 훗날 우리가 접하게 된 책(혹은 예술작품)을 구분하는 게 상대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본문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동일한 괄호 <>를 사용했다. 단, 각주나 참고문헌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따라 책은 『 』, 논문은 「 」으로 표시했다.



중동신화여행

신화, 아주 오래된 이야기



김현선
김혜정
시지은
김은희
신연우
이혜정
문현선



아시아•

어린 시절 <천일야화>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마법의 램프에서 풍하고 튀어나오는 거인, 하늘을 나는 양탄자, 열려라 참깨, 그리고 바그다드의 뒷골목에서 남의 신발이나 깁던 손으로 억울하게 살해된 시체를 감쪽같이 기워내던 신기료장수까지, 세해라자데가 목숨을 걸고 들려주던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도록 유년의 잠과 꿈을 지배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아라비아의 밤’은 더 이상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천일야화>가 실은 낯뜨거운 염정으로 가득한 성인물이어서만은 아니다. 2001년 9.11 이후,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중동은 끝없는 추문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엊그제 시리아의 동구타에서 들려온 것도 차마 귀를 막고 싶은, 또 다른 추문이었다.

이번으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신화여행은 바로 그 추문의 땅을 향해 떠난다. 행장을 꾸리기도 전에 겁부터 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박물관과 도서관이 무너지고 불탔는지, 얼마나 많은 도성이 부서지고 얼마나 많은 유물이 약탈당했는지! 그러나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출처도 알 수 없는 폭탄 세례 속에, 애든 어른이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잠과 꿈이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오직 추문으로 기억하기를 거부한다. 사막은 아무리 뜨거운 화공火攻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별밤을 선사하고, 티그리스 강은 아무리 많은 시체를 흘려보내고도 여전히 살아남은 연인들에게 다시 또 사랑의 산책로를 선사한다.

영생의 길을 찾아 세상 끝까지 갔던 길가메시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다. 전혀 영웅답지 않은 귀환이었다. 그러나 점토판의 해석자들은 그를 조롱하거나 무시할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다. 부서진 점토판의 마지막 행간은 길가메시에게 닥친 새삼 가혹한 ‘인간의 조건’에 관한 것이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원래 지닌 3분의 2의 ‘불멸’에 미련을 갖는 대신, 나머지 3분의 1의 ‘필멸’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그런 그의 눈앞에서, 그가 만든 도시가 홀연 장엄했다.

이 책은 좁게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넓게는 이집트와 페르시아까지 흔히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로 알려진 지역의 신화를, ‘중동신화’라는 이름 아래 두루 아우른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의 메소포타미아나 나일 하류의 기름진 삼각주는 인류 최초의 문명을 탄생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바빌로니아의 창세신화 <에누마 엘리쉬>는 하필이면 괴물 킹구의 피에 진흙을 이겨서 빚은 최초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때 인간은 오직 신들을 위한 경배와 노동을 위해서만 존재했다. 아니, 최고신들은 그마저 견딜 수 없었다.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리하여 대홍수로 그 소음을 잠재우려 했지만, 다행히 인간의 편을 든 신이 있었다. 엔키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몰래 일러주었다. 아트라하시스, 혹은 지우수드라, 혹은 우트나피

시팀이 그렇게 살아남아 인류의 또 다른 조상이 되었다. 그때부터 인류는 피라미드를 쌓았고, 공중정원을 꾸몄고, 와르카 화병을 빚었고, 무엇보다 문자를 만들어 자신들의 믿음과 역사를 기록했다.

중동신화여행은 문자를 포함한 그 모든 기록을 통해 인류 최초의 기억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우리는 물론 안다. 어제의 그 기억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슬픔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사실을. 그러나 인간은 시도 때도 없는 야만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은 비록 자욱한 포연 속에 말 그대로 초토가 되었을지언정 그 도시가, 장구한 세월 인간의 어떤 소중한 꿈을 보듬어왔는지 기억해내는 것도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맨 앞에 중동신화의 요체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문 여는 강의를, 이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다양한 면모를 살피는 강의들을 차례로 배치했다. 그렇지만 중동을 말할 때 찬란한 페르시아 문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근자에 크게 화제를 모은 서사시 <쿠쉬나메>에 관한 강의만으로도 그 문명의 깊이를 능히 짐작 하리라. 마지막 출구에서는 특히 죽음과 부활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동서양의 여신들이 일궈내는 다채로운 신화가 독자 여러분을 기다린다.

다시 한 권의 책으로 뚫인 『중동신화여행』에 참가한 인연으로, 그동안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뜻을 전한다. 경기문화재단의 이 기막힌 신화여행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못 기대가 크다.

봄이다, 다시 신화 같은.

2018년 새봄에, 필자 일동



책머리에

05

제1강

중동신화의 요체: 신화·서사시를 보는 시각 김현선

중동신화여행을 떠나며	17
세계의 신화 서사시, 이를 바라보는 시각	20
신화전승의 제1층위와 제2층위: 제주도의 사례를 구실삼아	31
중동신화와 서사시의 특징과 갈래	36
세계 중세서사시의 사례 비교	48

제2강

이집트 오시리스신화: 죽음과 부활의 신화 김혜정

한국의 '죽음과 부활의 신화'	56
이집트 고왕조의 구분과 특징	60
이집트 도시: 헬리오플리스, 헤르모폴리스, 멤피스, 테베	62
이집트 만신전	66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	70
이집트 오시리스신화의 의의와 가치	77

제3강

수메르 엔키신화 시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수메르	84
수메르신화와 엔키	85
엔키신화의 실상	92
엔키신의 신화적 의미와 신화사적 위상	110

제4강

저승여행을 다녀 온 여신, 이난나 김은희

메소포타미아의 여신 이난나	119
사라진 여신을 찾아서	122
이난나와 관련된 신화 판본	129
이난나의 저승 여행	143
이난나신화의 확장과 변화	151

제5강 길가메시 이야기: 죽음과 험무를 이기는 도시문명 신연우

수메르신화와 <길가메시 이야기>	163
<길가메시 이야기> 12개의 토판	169
<길가메시 이야기>의 의미	191

제6강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쉬> 이혜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	205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212
바빌로니아 창세신화 <에누마 엘리쉬>	218
<에누마 엘리쉬>의 설화적 성격	228

제7강 페르시아신화 <쿠쉬나메> 서사시 김현선

이란의 프로파일-타임라인	252
페르시아 문화와 <쿠쉬나메>	267

제8강 삶과 죽음, 여신의 두 얼굴 문현선

‘봄의 제전’과 신화	303
대지의 생명력과 신성론	309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신화	312
달과 여신	318
물과 여신	320
이난나 혹은 이슈타르	324
아름다움과 생명의 여신, 비너스의 탄생	326
달의 삼위일체	329
여신의 양면성: 이슈타르와 에레슈키갈	335
‘일곱 개의 베일의 총’	338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 그리고 아도니스 숭배	340
여신의 양면성: 이집트와 인도	342